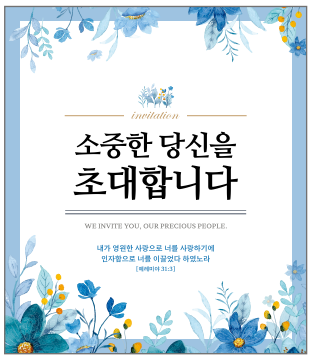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28회 통일성취기도회

육·해·공군·해병대 6개 부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기도

광림교회는 10월 15일(목) 육·해·공군·해병대 6개 부대에서 제28회 통일성취기도회를 개최했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선교구는 육군 25사단(광림남교회·광림북교회·동탄광림교회), 육군 7사단(6·9선교구), 육군 15사단(5·10선교구), 공군 39정찰비행단(2·8선교구), 해군 2함대(4·7선교구), 해병 2사단(1·3선교구) 등 6개 부대를 방문해 오전 11시 동시에 기도회를 열었다. 본당과 지교회, 가정과 일터에서도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기도의 마음을 모았다.

4·7선교구가 방문한 해군 2함대 영내 해군평택교회에서 진행된 기도회에서 박기연 장로는 "이 땅 대한민국을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변화와 생명, 회복의 역사로 통일의 그날이 새벽같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는 군 장병 모두에게 안전과 건강,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겔 37: 15~22)는 말씀을 전했다.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분단의 아픔을 겪어 왔으며 이 땅의 군 장병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 택하신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실 것을 믿는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회복시키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분단의 장벽을 허물며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는 하나 된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협이 해소되고 복음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또한 대한민국 군 지휘관과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북녘땅에 자유와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구했다. 한국교회가 통일선교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심어 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각 선교구는 기도회를 마친 뒤 부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군 교회와 장병들에게 헌금과 위문품, 간식 등을 전하며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나눴다.

특별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올해 6월 강화도 교동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세웠다. 해병 2사단을 방문한 1·3선교구는 부대 방문 후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찾아 통창 너머로 북녘땅이 보이는 마음 아픈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길이 열리고 전쟁 없는 평화가 오기를 기도했다.
광림교회는 군 장병들의 신앙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다양한 군 선교 사역을 이어 오고 있다. 진중세례식 후원과 군인교회 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군 선교에 힘쓰고 있으며, 1999년부터 매년 통일성취기도회를 열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소현수 기자

2 광림의 강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3 광림 스토리 2026 한미선교협력회의
4 하나님을 만나다 통일성취기도회 특집
6 목회현장 호스피스선교회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15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이라 말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고대 전쟁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전쟁터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전의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 높은 망루나 성문에 올라가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쟁의 상황과 전투 상황,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자 감격스러운 소식일까요. 이처럼 복음이란 바로 승리의 소식이며, 더불어 감격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승리와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겨 승리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둘째, 율법과 진노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셋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에 기독교를 가리켜 축제의 종교요, 환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제와 환의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구원의 증거로서 바른 인격과 더불어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합쳐질 때, 비로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10월은 복음전도의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9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안에 믿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내게 넘쳐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이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몸소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행동화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이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됩니다.

둘째,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14~15절).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에 깊이 감격한다면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피땀 흘리는 것이 전혀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을 이웃들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첫 번째, 희생할 동기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희생할 정도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세 번째, 희생을 통한 사명입니다. 곧,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열정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메는 목자의 심정,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복된 걸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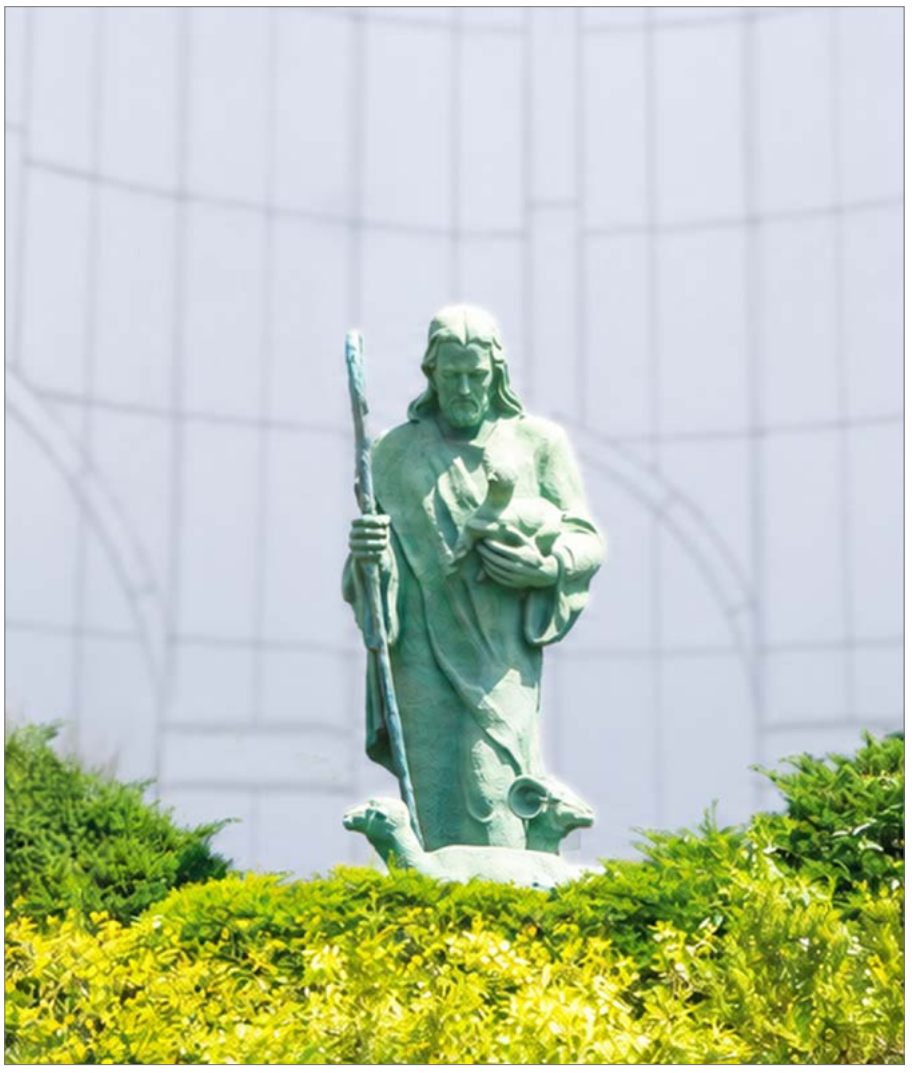
셋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걸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13절) 복된 걸음의 주인공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구원은 내 의로움이나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Blaise Pascal)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죄인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내 잘못까지도 남에게 떠넘기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태어나고 은혜 안에서 삽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때에 비로소 감격이 따라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 우리 안에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케 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9~15

9.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

'다시 예배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흥으로' 주제로 광림수도원에서 열려



지난 10월 10일(토) 오후 3시 30분,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 주관으로 '2026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가 광림수도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도회는 본당을 비롯해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다시 예배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도신우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스데반 부부찬양단 21명의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민수기 21장 4~9절을 본문으로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아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광야 같은 현실 속 불평을 멈추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며,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이며, 불평의 입술이 감사로 바뀔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때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강조했다.

2부 기도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회복, 한반도 평화와 세계선교 등 나라와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또한 교회의 예배 회복과 해외 선교지, 다음세대 부흥과 더불어 복된 가정과 삶의 터전이 사명의 자리가 되길 간구하며, 성도들은 말씀 순종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합심해 결단했다.

이날 기도회는 당초 800여 명을 예상했으나 1,100여 명의 성도가 모여 광림수도원을 가득 메웠다. 남선교회총연합회는 준비한 빵과 생수가 부족해 현장에서 추가 간식을 마련해 나누었으며, 지하 소예배실에서는 교육부의 아이 돌봄 섬김으로 온 가족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남선교회총연합회 박기연 장로는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섬겨 준 스데반찬양단과 아이 돌봄을 맡아 수고해 주신 교육부, 그리고 스데반 및 디모데 임원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한 성도들은 영성 깊은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영적 회복을 경험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의 증인이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서미라 기자

2026 한미선교협력회의

기독교대한감리회(KMC)·연합감리교회(UMC) 긴밀한 공조 다짐



기독교대한감리회(KMC)와 연합감리교회(UMC)가 지난 141년간 이어온 선교 동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교 협력의 청사진을 그렸다.

양 교단은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이주민 300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선교의 새로운 협력을 위해 지난 10월 13일(화)~14일(수)까지 속초 카시아호텔에서 '2026 한미선교협력회의'(Joint Mission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2022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회의는 광림교회 후원으로 김정석 감독회장과 UMC 트레이시 스미스 말론(Tracy S. Malone) 감독회장을 비롯해 양 교회 선교 핵심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측은 변화하는 선교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선교 파트너십과 공동 선교 프로그램 개발

한국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가 선교 역량을 결집해 협력의 폭을 넓힌다.

UMC 세계선교부(GBGM)와 한국감리교회 선교국이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선교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지속해서 발전시킨다.

선교적 유산 공동 계승

스크랜턴기념관 건립 등 양 교단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리는 사업에 힘을 모은다.

특히 양측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 300만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깊이 주목했다. 이주민 선교를 양 교회의 핵심 협력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한국감리교회의 초석을 다진 스크랜턴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는 '스크랜턴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오하이오 연회(정희수 감독)는 내년까지 건립 기금을 모금하는 한편, 주요 중직자들과 함께 내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복음으로 세계의 복잡한 현실에 대처해야

이틀간의 일정은 양 교단 지도자들의 깊은 영적 통찰과 비전 공유로 채워졌다. 개회예배에서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141년의 선교 역사를 함께 걸어온 양 교회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선교 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한다"며,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아시아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 교단이 굳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UMC 트레이시 스미스 말론 감독회장 역시 양 교회의 긴밀한 연대와 공동의 선교적 책임을 말하며, 세계가 직면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에 참된 복음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 감리교회가 하나 되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크랜턴 기념교회 방문과 역사적 스테인드글라스 기증의 감동

정희수 감독은 오하이오연회 역사보존위원회에서 윌리엄 스크랜튼과 메리 스크랜튼이 출석하였던 교회에 있는 '엡워드 리그'(Epworth League) 상징물인 스테인드글라스 윈도우를 스크랜튼 기념예배당에 증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징물은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의 사회선교 정신과 청년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동안 미국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서클에 보존되어 왔다. 현재 전문회사의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초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보전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현재 건축 중인 스크랜턴 기념교회를 직접 방문해 건립 현장을 둘러보고, 교회의 안전한 건축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교회학교 10월 복음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축제가 'TURN ON : 생명의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11월 1일(주일)까지 진행된다.



10월 11일(주일) 3부 예배에 CTS 기독교TV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연합대학교(UAUT) 이사회 의장 무깐달라 교수 부부가 참석했다.



바울&웨슬레 선교회장 모임
남선교회의 바울&웨슬레 선교회장 모임이 10월 18일(주일) 3부 예배 후에 애찬관에서 열렸다.

감독회장 동정



10/12~14	한미선교협력회의
10/15	통일성취기도회
10/21~23	안디옥개신교회 건축 현장 방문
10/25	복음전도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제28회 통일성취기도회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목) 오전 11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개 부대 **주관** 남선교회총연합회




해군 2함대(4,7 선교구)





해병 2사단(1, 3선교구)







공군 39정찰비행단(2, 8선교구)



육군 15사단(5, 10선교구)







육군 7사단(6, 9선교구)



육군 25사단(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청년부

복음전도의 달, 웰컴파티



광림교회 청년부는 10월 복음전도의 달을 맞아 새신자와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청년들을 환영하기 위한 교구별 웰컴파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새로 온 청년들이 교구원들과 교제하며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자리다.
지난 10월 11일(주일)에는 1교구와 4교구가 먼저 웰컴파티를 개최해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1교구, 선물 만들기 클래스 운영

1교구 웰컴파티는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은 흐르고 흘러'(Love Flows and Flows)를 주제로 새신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한 선물 만들기 클래스를 운영했다. 이번 클래스는 웰컴파티에 함께 참석한 새신자에게 선물을 전하고, 앞으로 초청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이었다.
청년들은 파우치, 십자가 키링, 아크릴 무드등, 업사이클링 도어벨 가운데 원하는 클래스를 선택해 직접 선물을 제작했으며 가족과 친구 등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떠올리며 평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엽서에 담았다.



선물을 만드는 동안 서로의 작품을 구경하고 제작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함께 참여한 새신자와 기존 교구원들도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웰컴파티는 새신자들에게는 따뜻한 환영을 전하고, 기존 교구원들에게는 앞으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복음 전도를 준비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청년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엽서가 소중한 이들에게 전해져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4교구, 말씀과 교제로 함께한 웰컴파티

4교구는 새신자 맞춤형 전체 속회와 저녁식사를 중심으로 웰컴파티를 진행했다. 5부 예배를 마친 후 새신자와 오랜만에 참석한 청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교구장의 인도로 교구 전체 속회가 진행되었다.
평소 각 속회별로 모이던 청년들이 이날은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누었으며, 새신자들도 기존 교구원들과 함께 속회에 참여하며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평소 다른 속회에 속해 교제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까지 함께하면서 교구원들 간의 만남은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다.

전체 속회를 마친 뒤에는 토크쇼가 진행되었고, 청년들은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이어진 경품 추첨에서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 웃음이 오갔다. 이번 웰컴파티를 통해 새신자들은 교구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속회 모임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 예배와 속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복음전도의 달, 계속되는 만남과 교제

1교구와 4교구의 웰컴파티를 시작으로 다른 교구에서도 새신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행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교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고, 새롭게 교회를 찾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복음전도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웰컴파티가 청년들에게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새신자들에게는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나눌 공동체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 시작된 만남이 주일예배와 속회로 이어져, 청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믿음을 키워 가는 교제가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장희정 간사(청년부)

광림남교회

안디옥개신교회 재건 위한 자선후원음악회

'안디옥 거룩한 성, 영원한 사랑 노래'

광림남교회는 지난 10월 18일(주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자선후원음악회 '안디옥 거룩한 성, 영원한 사랑 노래'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개신교회의 재건을 돕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사랑과 회복의 소망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복음이 세계로 전파된 초대교회 선교의 출발지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뜻깊은 신앙의 터전이다. 그러나 대지진으로 그곳의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남겼다.

이에 광림남교회는 무너진 예배의 처소를 다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찬양과 사랑, 나눔이 어우러진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다.
'절망에서 그리움, 사랑을 지나 희망과 비전으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음악회는 1부 '절망', 2부 '그리움과 사랑', 3부 '희망', 4부 '비전'으로 구성돼 절망을 넘어 회복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다.
특히 국내 정상급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으며, 양태갑 지휘자와 가나안·새하늘성가대의 찬양이 더해져 깊은 은혜와 감동을 전했다.

음악회는 별도의 입장료 없이 주일저녁예배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자발적인 헌금으로 사랑의 나눔에 동참했다. 출연자들 또한 출연료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귀한 달란트를 기쁨으로 나누며 섬김의 의미를 더했다.
이렇게 모인 정성은 단순한 후원금을 넘어 무너진 안디옥교회를 다시 세우는 믿음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음전도의 달을 맞아 지역 이웃들을 초청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와 이웃이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송양근 목사는 "이번 음악회는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개신교회의 재건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모으는 믿음의 자리이며 음악을 통해 전해진 위로와 감동이 일회적인 감동에 머물지 않고 교회 재건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안디옥에 다시 예배의 불이 밝혀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음악위원장 권정숙 장로는 "은혜 가운데 음악회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감독회장님과 장로님들, 가나안·새하늘 성가대와 양태갑 지휘자님, 헌신적인 연주자들과 모든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초청한 이웃들과 감동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으며, 안디옥개신교회가 다시 세워질 날을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리였으며,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을 이룰 수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백명순 기자



목회현장

일상이 일생으로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고, 우리는 익숙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던 일도 꾸준히 이어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경험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반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대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예배의 자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은 광림교회 본당에서 정기예배를 드리고,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는 화요학생예배를 드립니다. 목요일에는 말씀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금요일에는 기도회와 찬양팀 연습을 이어 갑니다.

이러한 시간을 바라보며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학생들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지난 1학기를 마친 뒤, 현대고등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동해안 해파랑길을 따라 국토순례를 떠났습니다. 무더위와 피로를 견디며 계속 걸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인솔하신 한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학생들은 지치고 힘들 때 대중가요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멈출 수 없네', '꽃들도'와 같은 예배 찬양을 함께 부르며 힘든 순간을 이겨 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반복되는 예배의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던 찬양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힘겨운 길 위에서도 학생들의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학교 예배와 광림교회 정기예배를 통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고등부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예배의 경험이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목회자로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반복되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을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오늘의 예배가 일상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일생을 이끄는 믿음의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기도가 눈물로 이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준구 목사(현대고)

호스피스선교회

호스피스가 왜 필요한가?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도록 돕는 사역



지난 10월 1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광림교회 호스피스선교회(회장 이혜선 권사) 주관으로 '삶에서 호스피스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강의가 사회봉사관 2층 호스피스선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도들은 호스피스와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림호스피스선교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분한 장로(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왜 병에 걸렸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삶과 죽음의 의미, 호스피스의 역사와 역할, 말기암 환자의 증상 관리와 신체 돌봄,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영적 돌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호스피스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임을 강조했다.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환자가 겪는 두려움과 외로움, 가족과의 관계, 삶의 의미와 신앙의 문제까지 함께 보살피는 것이 호스피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별 후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돌보는 것 역시 호스피스 사역의 한 부분임을 전했다.
이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가족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신의 뜻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임종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돌봄과 치료에 대해 미리 뜻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분한 장로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한 교육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신의 생애 마지막과 연명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선교회의 바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가족과 이웃의 마지막 여정을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호스피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이정순 기자

KSEC

시니어들을 위한 평생 배움터

이왕재 박사 초청 '성경 속 장수의 비밀' 특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광림평생교육대학원 KSEC(위원장 성은경 장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림평생교육대학원은 노년기 권사, 집사와 성도들이 즐겁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들의 평생 배움터이자 믿음의 공동체다.

지난 10월 15일(목) 광림교회 웨슬리관 3층에서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왕재 박사를 초청해 '성경 속에 나타난 120세 건강 장수의 비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열렸다. 이왕재 박사는 의학적 전문 지식에 기독교적 창조섭리를 접목해 신앙의 중요성을 전했다.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인체의 건강과 생사 여부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타민 C의 의학적 유익을 설명했다. "비타민 C가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듯 인간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부여하는 '영혼의 비타민 C'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Christ)"라고 전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하반기 총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광림평생교육대학원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전에는 예배와 명사 초청 특강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개인의 취향과 수준에 맞춘 다양한 분반 활동이 펼쳐진다.
현재 개설된 강좌는 줌바댄스, 컴퓨터 초중급, 인문학, 철학, 한국무용, 라인댄스, 필라테스, 여행영어, 생활영어 등 총 10개이다. 오후 3시에는 합창반 수업이 이어지고, 10월과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야외학습을 간다.
10월 8일(목)에는 105명의 어르신들이 대천항에서 크루즈여객선을 타고 5개 섬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11월 5일(목)에는 설악산을 오르고 고성 최전방에서 통일성취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성은경 장로는 "교회에서 준비한 다양하고 즐거운 교육 과정을 통해 시니어 성도님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유병권 기자



사회사업위원회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리고 믿음의 교제 나눠



사회사업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7시, 강릉 정동진으로 영성훈련을 떠나 신앙을 돌아보고 성도 간의 친교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일정은 장재관 장로(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의 기도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서헌권사의 기타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며 은혜로운 예배의 문을 열었다. 이어 방경현 권사가 누가복음 21장 37~38절을 본문으로 '참된 휴식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통해 참석자들은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왔던 모습을 묵상하며,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겼다.
화창한 날씨 속에 정동진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바다부채길을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동해의 풍경을 감상하고, 정겨운 담소 속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갔다. 바다를 따라 펼쳐진 독특한 해안 지형과 수려한 풍광은 참석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하슬라아트월드를 방문해 다양한 예술작품을 관람하며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야외조각공원과 현대미술관, 피노키오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을 갖춘 복합예술공간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감동을 함께 경험한 참석자들은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다.
특히 몸이 다소 불편한 회원도 있었지만, 서로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배려와 사랑을 나누고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했다.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는 모습은 성도 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번 여정은 예배와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은 물론, 자연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성도 간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신앙의 기쁨을 나눴고, 모든 일정을 마친 뒤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왔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한 이날의 시간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했다.

장재관 장로는 "회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위원회의 역할에 힘써온 회원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과 평소에도 사회사업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홍명기 권사(사회사업위원회 회계)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곳, 세대를 잇는 유년부

유년교육위원회 위원장 - 홍석진 권사



어린 시절 유년부에서 말씀을 배우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교사로 돌아오고, 함께 봉사하던 교사들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와 함께 다시 유년부를 찾는다.
대학생 시절 교사로 첫발을 내디딘 홍석진 권사는 30년 가까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봤다.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행복한 기억으로 남고, 교사들에게는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유년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석진 권사에게 유년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유년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꼭 교회에서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했고 누나가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 자연스럽게 시작했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킬 줄은 몰랐지만, 해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이곳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처음부터 함께한 선생님들과는 수십 년을 믿음의 동역자로 지내왔습니다.
유년부는 제 신앙과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유년부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처음 교사로 섬기던 시절에는 휴대전화가 없어 공중전화로 아이들에게 안부를 묻곤 했어요. 지금은 카카오톡과 온라인 매체로 소통하고, 아이들도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해졌기에 신앙교육 역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재미있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죠. 매주 아이들의 눈과 미소를 마주할 때마다 제가 더 좋은 어른, 더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유년부 교사 공동체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유년부에는 20년 가까이 함께한 교사들,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신 권사님도 있고, 이곳에서 만나 부부가 되거나 배우자가 함께 교사로 봉사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 자녀들까지 함께 자라면서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대가족 같은 공동체가 됐죠.
특히 교사들의 자녀나 유년부를 졸업한 아이들이 성장해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위원장이 된 뒤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교사 한 분 한 분이 더욱 귀하게 보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오래도록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년부 아이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한 곳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년부에서는 예배와 성경공부뿐 아니라 성경퀴즈, 게임, 달란트잔치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훗날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좋았어,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라고 기억한다면 그 자체로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될 거예요. 그 즐거운 기억 속에 유년부에서 외웠던 말씀 한 구절이 남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됐으면 합니다.
어린 학생이 청년이 되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시 그 자녀가 유년부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년부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이들이 유년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말씀을 평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잠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먼 훗날 아이들이 "어릴 때 광림교회 유년부에서 참 행복했고, 그때 배운 말씀 덕분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열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년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나 어른이 된 뒤에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고 싶어요. 선배 교사들의 헌신이 젊은 교사들에게 이어지고, 가정과 교회가 서로 신뢰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33



최초의 사사, 옷니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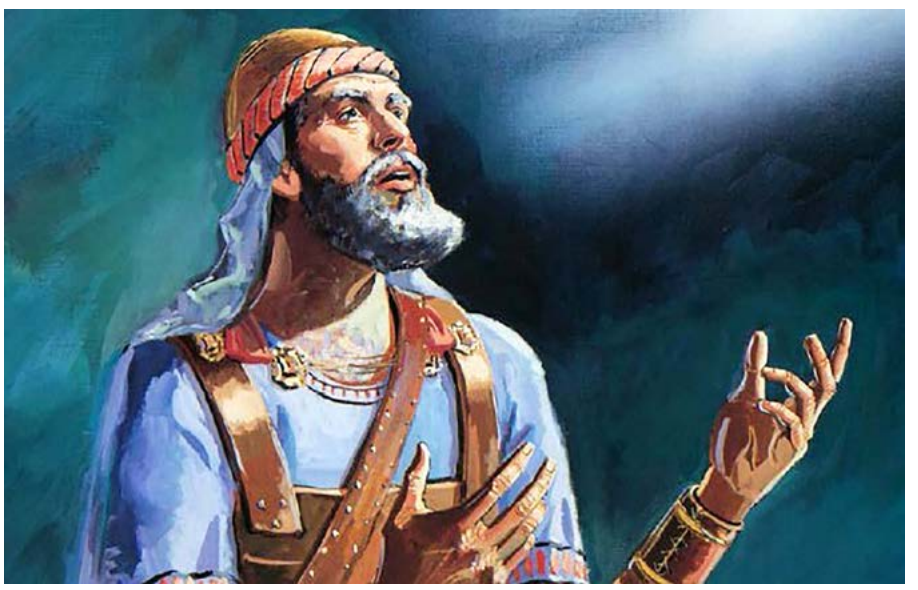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삿 2:1~3)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숙원이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러나 지중해 연안 서아시아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들은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놓고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필요할 때마다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옳고 그름을 따르고자 했다. 이런 판단은 만약 지도자를 새로 뽑을 경우, 지금까지 각 지파 사이에 있던 오래된 경쟁심을 부추겨 오히려 더 혼란만이 가중될 것 같아서였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치른 많은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전쟁을 하던 이전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들의 악행을 보다 못해 진노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급기야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빌려 8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려고 그들 중 한 구원자를 발탁했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었다.

옷니엘은 40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에스골 지방을 정탐한 갈렙의 딸 악사와 혼인하였다. 당시 갈렙은 자신의 후계자를 뽑으려고 시험을 했었다. 갈렙은 자신이 성주로 있는 헤브론의 서남방 15㎞ 지점에 있는 드빌을 정복하는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딸까지 아내로 주겠다고 공포했다.
그러자 조카 옷니엘이 곧장 자원하여 드빌을 정복했고, 아름다운 아내 악사를 얻게 되었다.

▼ **옷니엘_**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였던 옷니엘은 하나님의 명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내쫓아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이때 악사는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남편 옷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를 졸라 메마른 땅에 샘을 몇 개만 달라고 하여 수자원의 영지까지 얻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옷니엘은 바빌론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그들을 몰아냈다. 다시 이스라엘은 평온을 되찾았고, 40년 후에 옷니엘이 죽었다. 옷니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다. 그들은 인근 이교도의 딸들과 결혼하거나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 이런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의 언어와 종교를 따르게 마련이었다.

점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을 망각해갔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들은 강력한 이웃 나라에 꼼짝 못 하는 존재인 것을 잊었다. 그 결과 그들은 모세가 지도자였던 시절부터 우선시한 '이스라엘 공동체'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 **옷니엘 사후의 이스라엘_** 옷니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이교도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저질렀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그들 주변의 적들로 벌하였다.

▲ **이교도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_** 이스라엘 민족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자 이교도와 결혼하는 등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그들은 이교도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점점 문란하고 폭력이 난무한 사회가 되었다.
루카스 반 레이던 작품

이런 이스라엘의 내분은 이들을 늘 주시하던 이웃 나라에도 알려졌고, 모압과 암몬, 아말렉은 동맹을 맺어 몇 년 전 여호수아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자 이스라엘을 침입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점령당했고, 그들은 또다시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상태는 18년간 지속되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치자로 섬기기에 이른다.

광림 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신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편집인 황지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희윤 백명순 서미라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광림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